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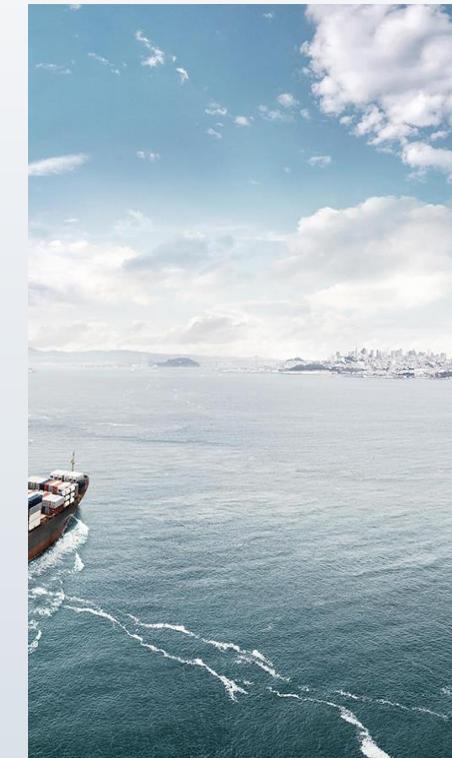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70

Updated October 15,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7
- BC Sales Report	
Tankers	12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6
Key Indicators	19
STL News & Information	21
Contact Information	23

I . ISSUE & TREND

1. 카타르 LNG 운송계약 수주를 위해 국적선사 뭉쳤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5 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대표: 양국 산업부 장관)'에 참석하여 양국 간 에너지 및 해양수산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 '제 4 차 고위급 전략협의회'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등 7개 부처가 참석하여 에너지, 교역·투자, 건설·인프라, 농업, 해양수산업, 보건의료, 교육, 4차산업 대응, 기타 등 9개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에너지 협력에 있어 이번 고위급 전략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카타르가 신규 발주할 예정인 LNG 운반선의 운영에 우리 해운선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양국 간 LNG 분야의 협력은 주로 LNG 도입과 LNG 운반선 건조분야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이낙연 총리의 카타르 순방 때(7. 19.~21.) 이 총리가 "한국기업들이 LNG 운반선의 건조 및 운송, 유지·보수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이후, 카타르가스는 한국 LNG 운송선사에 입찰참여 의향요청서를 발송해 온(7. 31.) 바 있다.

한국의 5개 LNG 운송선사(대한해운, SK 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팬오션, 현대 LNG 해운)는 카타르 LNG 운송계약 수주를 위해 국적선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선사의 우수한 LNG 운송 노하우와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는 참여제안서를 준비해 왔다.

국적선사 컨소시엄은 이번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및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카타르가스를 방문하여 제안서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카타르가스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본부장이 '한-카타르 해운항만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여 원유·LNG를 수출하는 화주국인 카타르와 해운항만 강국인 한국의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카타르와 그동안 추진해 온 해운협정 문안 합의를 완료하고 차기 외교행사를 계기로 정식 서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수산양식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 "이번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계기로 한국과 카타르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라며, "특히, 최초로 국적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화주의 운송 시장 개척에 나선 만큼, 우리 해운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Ⅰ. ISSUE & TREND

2. 물동량 느는데 운임은 하락세...해운업계 고심

초대형 컨테이너선 전환기에 접어든 해운업계에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항로의 물동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운임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형 선박 열풍으로 한정된 물량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돼 운임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7 월 아시아 15 개국발 유럽 54 개국행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월 4% 늘어난 149 만 3,077TEU를 기록했다. 2011 년 집계 시작 이후 7 월 실적으로 최고치다. 올해 유럽수출항로 물동량은 2 월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항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해운사들에게 고무적인 소식이다. 그만큼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량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국내 조선 빅 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에 20 척의 초대형 컨선을 발주한 현대상선에겐 더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현대상선은 20 척의 컨선 중 내년 4 월부터 인도가 시작되는 2 만 3,000TEU 급 12 척의 선박을 유럽항로로 배정할 계획이다. 아직 노선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2 만 TEU 급 이상의 초대형 컨선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유럽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현대상선은 내년부터 하팍로이드(독일)·ONE(일본)·양밍(대만)이 회원사로 있는 디얼라이언스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고 내부 영업조직을 개편하는 등 유럽 노선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물동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긴 이르다. 물건을 운송하며 받는 운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익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항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7 월 684 포인트에서 8 월 795 포인트로 반등했다가 다시 714 포인트로 하락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는 초대형 컨선 투입으로 인한 공급 과잉의 영향이 컸다.

특히 내년까지 글로벌 선사들이 발주한 초대형 컨선이 시장에 줄줄이 나온다는 점을 예상해볼 때 운임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물량 확보를 위한 운임 경쟁이 치열해져 물량을 확보했음에도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

Ⅰ. ISSUE & TREND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사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운임을 낮추진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적정선이 정해질 것이고 여기서 누가 얼마나 운임 원가를 절감하느냐에 따라 수익성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상선의 경우 환경규제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발주한데다 운임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 경쟁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3. 정부, 2021년까지 조달-통관-물류-결제 수출 전 과정

디지털화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조달-통관-물류-결제 등 수출 전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90%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는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수립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 후속의 수출구조 혁신 대책 중 하나다.

이번 방안은 오는 2021년까지 'UTH(U-트레이드 허브) 2.0'으로 불리는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거래 디지털화 △빅데이터·AI를 이용해 무역업체가 원하는 정보의 맞춤형 제공 등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중소기업들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 정보를 모은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2020~2021년)한다.

무역금융도 디지털화한다. 우선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해 오는 12월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한다.

박재영 산업부 무역정책과장은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외국환은행에 매입 신청시 내년 7월부터는 온라인 매입만 가능해진다. 수출채권 매입은행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Ⅰ. ISSUE & TREND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라인화하는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도 도입된다. 기존 17 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 현장 방문 제출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UTH 2.0)'은 2021년까지 만든다. 기업의 조달→계약→통관→물류 수출 전 과정에서 거래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도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소재·부품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B2B) △소비재 중심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KOTRA의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한다. 업종별·테마별 전문물을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마케팅을 지원(70 개사 40 억원)한다. 또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간이신고와 목록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신고서식으로 일원화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4. 국내 정치 위기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일단 봉합

미국 정부가 중국과 15개월간 벌여온 무역 전쟁에서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고 지난 11일(현지 시각)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해 온 '빅딜(전면적 타결)'이 성사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원했던 '스몰딜'에 가까운 결과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중국의 승리"라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입장을 또다시 번복할 수도 있는 등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종결까지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류허(왼쪽) 중국 부총리를 만나 약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류허 부총리 등과 만남에서 "예비적 무역 협정(PRELIMINARY TRADE DEAL)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1단계(SUBSTANTIAL PHASE ONE) 합의에 이르렀다"고도 표현했다.

Ⅰ. ISSUE & TREND

먼저 미 백악관은 "15 일부터 2,500 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유예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400 억~500 억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조항을 갖고 있진 않지만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개방, 환율 조작 금지 등에서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번 부분 합의는 향후 3 주, 최대 5 주 후에 문서로 작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까지 중국산 3,620 억달러에 15~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오는 12 월 계획된 1,600 억달러에 15% 관세까지 부과하면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매기게 된다. 이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최근 경기 둔화 징후를 보이는 미국 경제에 악재가 될 전망이었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 봉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정치 위기 몰리자 일단 봉합

이날 미국 정부는 '1 단계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면서도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특히 그동안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국영기업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문제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또 12 월 시행을 예고한 1,600 억달러어치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철회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화웨이 제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특히 양국은 지난 5 월 워싱턴 DC 고위급 협상에 앞서 합의에 근접했다가 실제 협상에선 결렬된 바 있다. 불공정 무역 행위를 시정하는 법률 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겠다는 약속을 중국이 뒤집었다는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국내 정치·경제 문제로 코너에 몰리자 일단 확전을 피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는 데다 야당이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어 내년 11 월 대선까지 무역 전쟁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시진핑 주석 역시 홍콩 민주화 운동, 급속한 경기 둔화 등의 문제에 시달리는 가운데 무역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 불확실성 여전

미·중 무역 전쟁이 1 단계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뉴욕증시(다우존스산업평균)는 1.2% 상승했다. 그러나 당장 한국 경제에 미쳐온 부정적 영향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 계획을 유예했을 뿐 기존에 중국산 제품 2,500 억달러어치에 부과하고 있던 25% 관세와 1,120 억달러어치에 대한 15%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중국산의 미국 수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중국 경제 상황이 급속히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

I . ISSUE & TREND

한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다. 지난 1~7 월 누적 수출액은 3,173 억달러 (약 380 조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 감소했다. 세계 10 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작년 수출액 세계 6 위였던 한국은 올 들어 누적 수출액에서 8 위로 내려앉았다. 대(對)중국 수출 감소가 주원인이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합의한다면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양국이 전략적으로 택한 일시적인 휴전 상태에 가까운 지금 단계에선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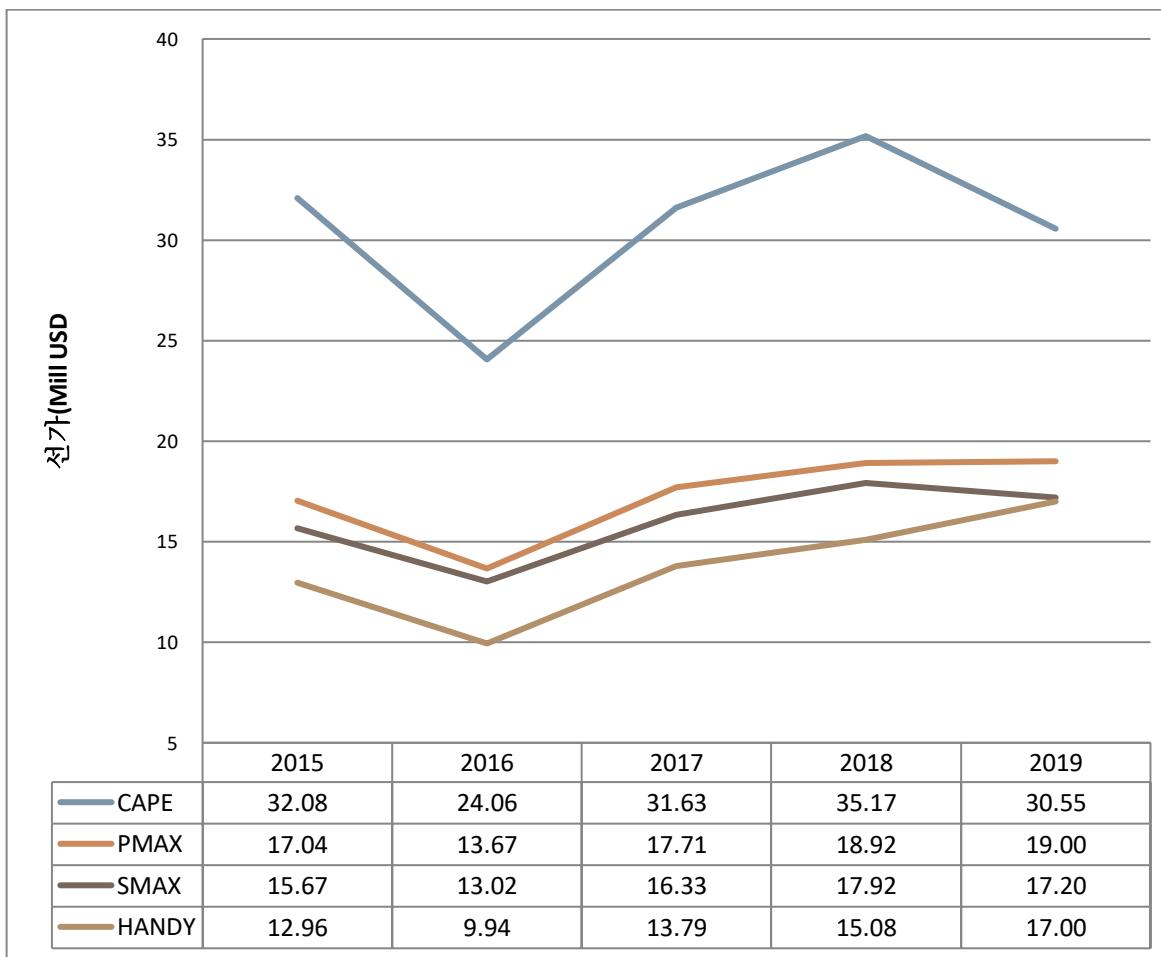
II. BULK CARRIER

(❖선령 5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Capesize 180K	32.08	24.06	31.63	35.17	30.55
	-31.45%	-24.99%	31.43%	11.20%	-13.14%
Panamax 76K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Supramax 58K	15.67	13.02	16.33	17.92	17.20
	-36.04%	-16.91%	25.44%	9.69%	-4.02%
Handysize 37K	12.96	9.94	13.79	15.08	17.00
	-33.20%	-23.32%	38.78%	9.37%	12.73%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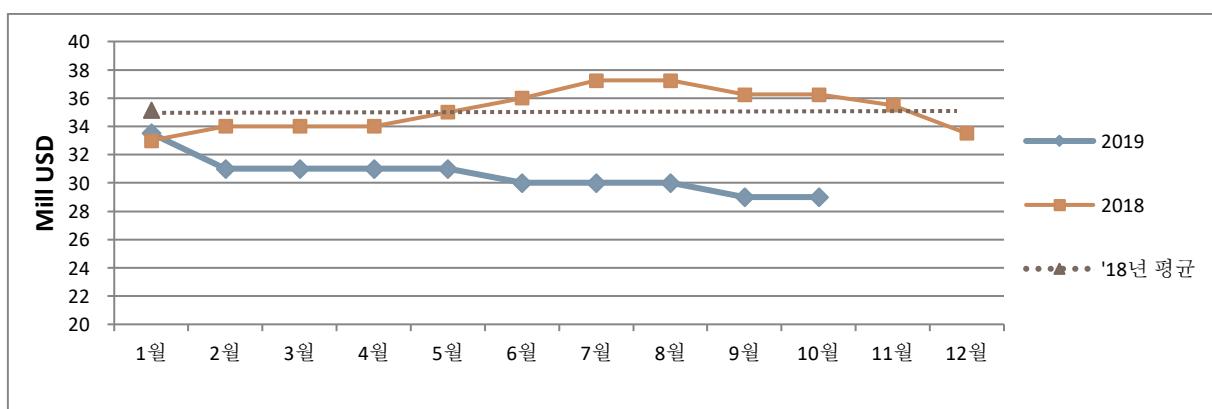
(❖선령 5년기준, Million USD)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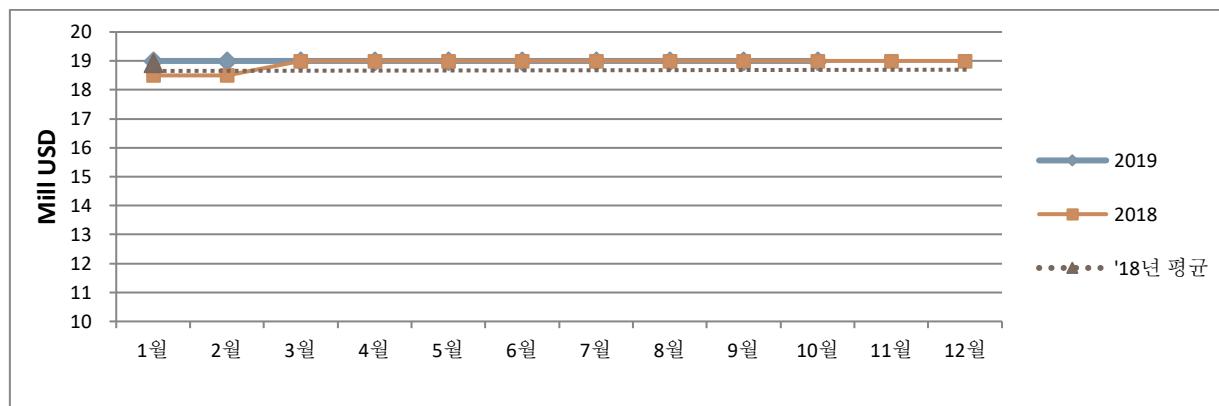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1.00	31.00	31.00	31.00	31.00	30.00	30.00	29.00	29.00		30.55
		전월대비	0.0%	-7.5%	0.0%	0.0%	0.0%	0.0%	0.0%	-3.3%	0.0%			-
		전년대비	1.5%	-8.8%	-8.8%	-8.8%	-8.8%	-11.4%	-19.5%	-19.5%	-20.0%	-20.0%		-13.1%
	PMAX 76k	선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전월대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7%	2.7%	0.0%	0.0%	0.0%	0.0%	0.0%	0.0%	0.0%	0.0%		0.4%
	SMAX 58k	선가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50	17.50	17.00		17.20
		전월대비	0.0%	-5.6%	0.0%	0.0%	0.0%	0.0%	0.0%	2.9%	0.0%	-2.9%		-
		전년대비	2.9%	-2.9%	-5.6%	-5.6%	-5.6%	-5.6%	-5.6%	-2.8%	-2.8%	-5.6%		-4.0%
	H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전월대비	1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1.4%	21.4%	13.3%	9.7%	9.7%	9.7%	6.3%	13.3%	13.3%	13.3%		12.7%
2018	CAPE	33.00	34.00	34.00	34.00	35.00	34.00	37.25	37.25	36.25	36.25	35.50	33.50	35.17
	PMAX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8.92
	SMAX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7.92
	HANDY (32k)	14.00	14.00	15.00	15.50	15.50	15.50	16.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8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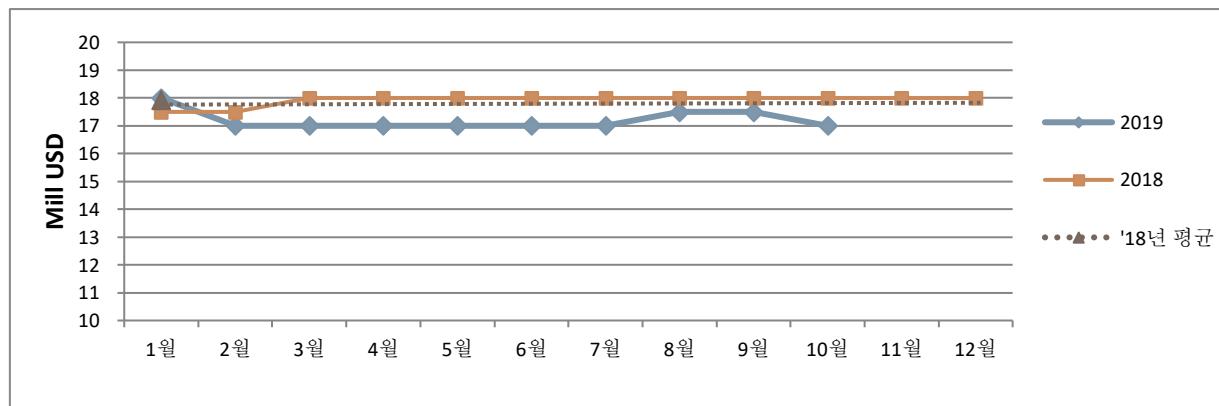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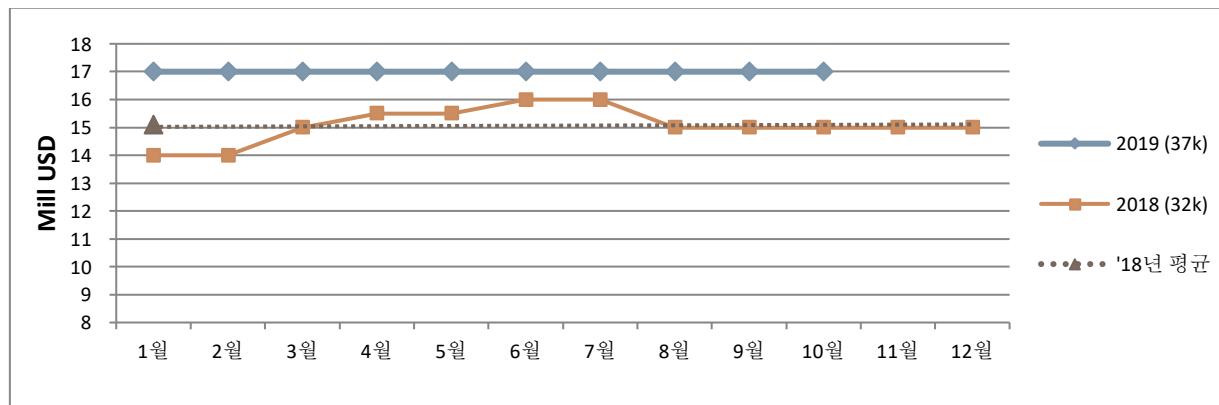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JO JIN MARU	98,697	2012	JAPAN	B&W		19.7	U.K. buyers (Anglo International Shipping)
BC	MANGARELLA	82,654	2009	JAPAN	B&W		15.5	Greek buyer, BWTS fitted
BC	TRUSTN TRADER II	82,293	2015	JAPAN	B&W		24.35	
BC	TRUSTN TRADER I	82,293	2015	JAPAN	B&W		24.15	On Subs, Chinese buyer (China Development Bank)
BC	FALCON TRADER	81,895	2016	CHINA	B&W		26.5	
BC	MILD SEA	81,684	2013	CHINA	WART		16.7	Undisclosed buyer
BC	GUO QIANG 8	63,376	2018	CHINA	B&W	C 4x35t	23	Middle Eastern buyer (Oman Shipping), BWTS fitted
BC	LEFKONIKO	56,810	2010	CHINA	B&W	C 4x30t	10	
BC	ANOGYRA	56,810	2010	CHINA	B&W	C 4x30t	10	Undisclosed buyer
BC	DARYA MAHESH	56,056	2008	JAPAN	B&W	C 4x30.5t	12.5	Chinese buyer, SS fresh passed
BC	ETERNAL TRIUMPH	55,830	2012	JAPAN	WART	C 4x30t	14	Greek buyer
BC	TAI HEALTH	51,008	2001	JAPAN	B&W	C 4x30t	6.6	Chinese buyer
BC	KS FLORA	35,678	2015	JAPAN	B&W	C 4x30t	15.5	Monaco buyer, BWTS fitted
BC	V RED KNOT	32,700	2003	JAPAN	MITSU	C 4x30.5t	6.3	Vietnamese buyer (FGAS)
BC	GLOBAL ENDEAVOR (log fitted)	32,139	2008	JAPAN	MITSU	C 4x30t	8.3	Vietnamese buyers (Hai Phong)
BC	KING SUGAR	29,196	2010	JAPAN	B&W	C 4x30.7t	7.25	Greek buyer
BC	FORZA (log fitted)	28,564	1997	JAPAN	MITSU	C 4x30t	3.2	Chinese buyer

II. BULK CARRIER

BC	GENCO CHAMPION (log fitted)	28,445	2006	JAPAN	B&W	C 4x30.5t	6.6	Greek buyer
BC	DANSHIP BULKER (log fitted)	28,291	2009	JAPAN	B&W	C 4x30t	7.8	Undisclosed buyer, 3 gener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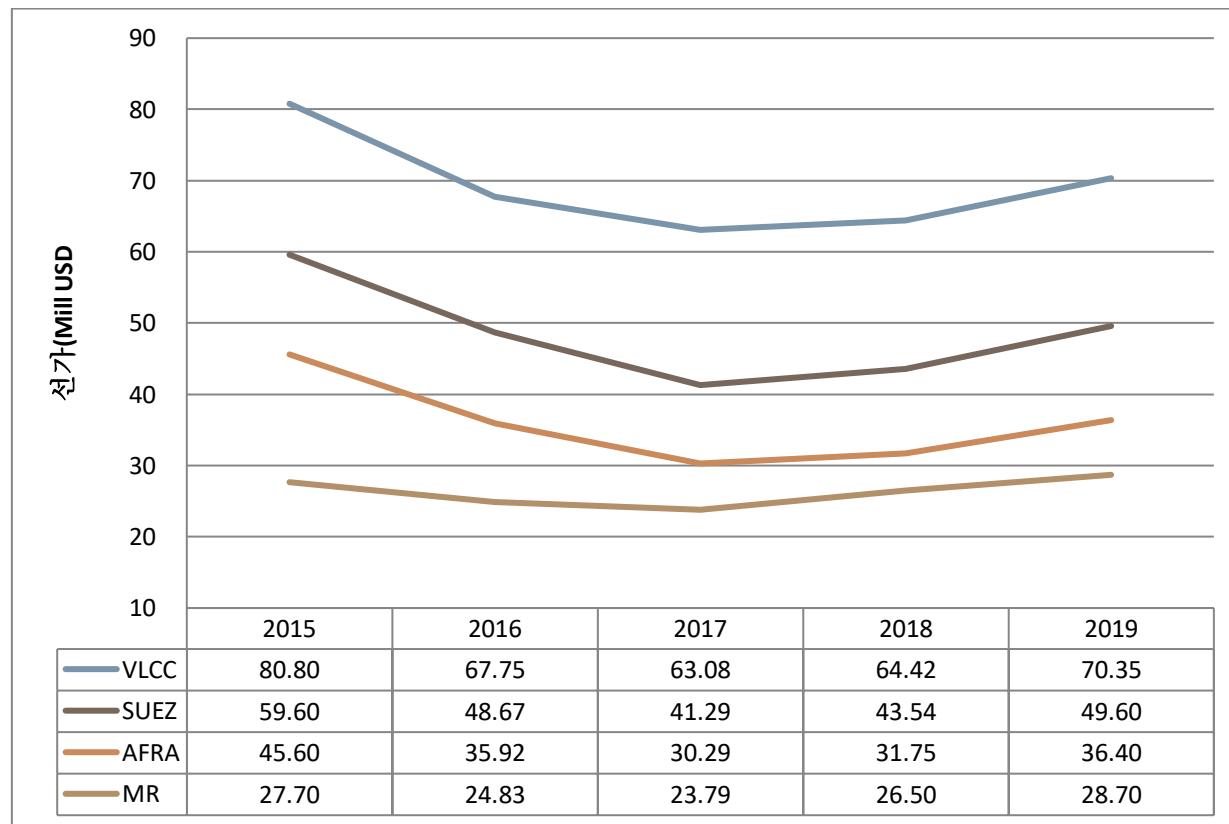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70.35
	9.04%	-16.15%	-6.89%	2.11%	9.21%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49.60
	17.32%	-18.34%	-15.15%	5.45%	13.92%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6.40
	17.83%	-21.24%	-15.66%	4.81%	14.65%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70
	2.97%	-10.35%	-4.19%	11.38%	8.30%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0.98
	-3.08%	10.45%	-10.78%	-5.20%	-6.75%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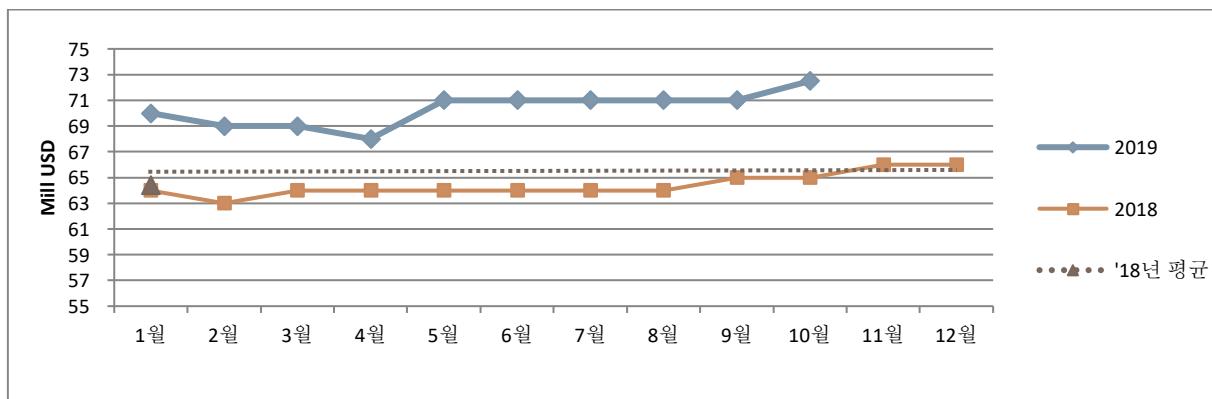
❖선령 5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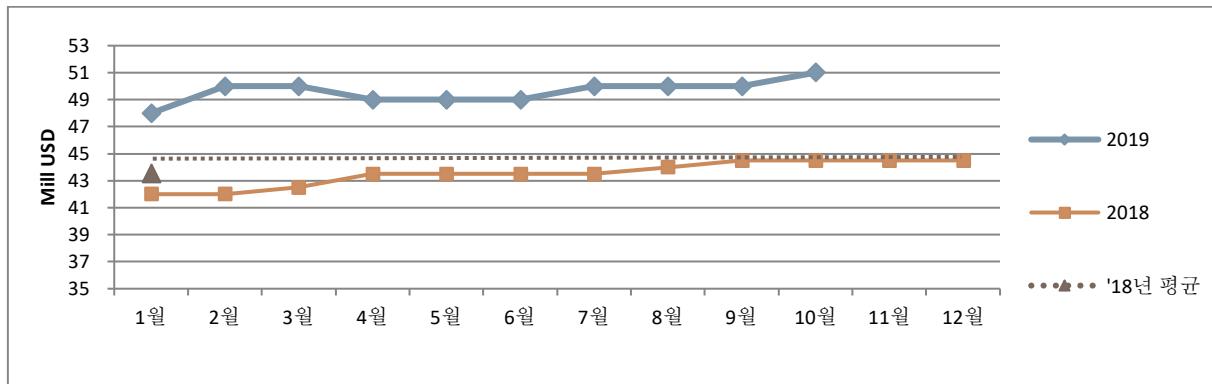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00	71.00	72.50			70.35
		전월대비	6.1%	-1.4%	0.0%	-1.4%	4.4%	0.0%	0.0%	0.0%	2.1%			-
		전년대비	9.4%	9.5%	7.8%	6.3%	10.9%	10.9%	10.9%	9.2%	11.5%			9.2%
	SUEZ 160K	선가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00	50.00	51.00			49.60
		전월대비	7.9%	4.2%	0.0%	-2.0%	0.0%	0.0%	2.0%	0.0%	2.0%			-
		전년대비	14.3%	19.0%	17.6%	12.6%	12.6%	12.6%	14.9%	13.6%	12.4%	14.6%		13.9%
	AFRA 105K	선가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8.00	38.00	38.00	38.00		36.40
		전월대비	6.1%	0.0%	0.0%	0.0%	0.0%	5.7%	2.7%	0.0%	0.0%			-
		전년대비	9.4%	16.7%	12.9%	9.4%	9.4%	15.6%	18.8%	18.8%	18.8%	22.6%		14.6%
	MR 51K	선가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30.00	30.00	29.00	29.00		28.70
		전월대비	1.8%	0.0%	0.0%	0.0%	0.0%	3.6%	3.4%	0.0%	-3.3%	0.0%		-
		전년대비	12.0%	12.0%	7.7%	4.7%	4.7%	8.4%	12.1%	15.4%	7.4%	7.4%		8.3%
	CHEM IMO2 13K	선가	11.00	11.25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0.75	10.75		10.98
		전월대비	0.0%	2.3%	-2.2%	0.0%	0.0%	0.0%	0.0%	0.0%	-2.3%	0.0%		-
		전년대비	-15.4%	-10.0%	-12.0%	-10.2%	-6.4%	-4.3%	-4.3%	-4.3%	-6.5%	-4.4%		-6.8%
2017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5.00	65.00	66.00	66.00	64.42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0	44.00	44.50	44.50	44.50	44.50	43.54
	AFRA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1.00	32.00	33.00	31.75
	MR	25.00	25.00	26.00	26.75	26.75	26.75	26.75	26.00	27.00	27.00	27.50	27.50	26.50
	CHEM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50	11.50	11.50	11.25	11.00	11.00	11.77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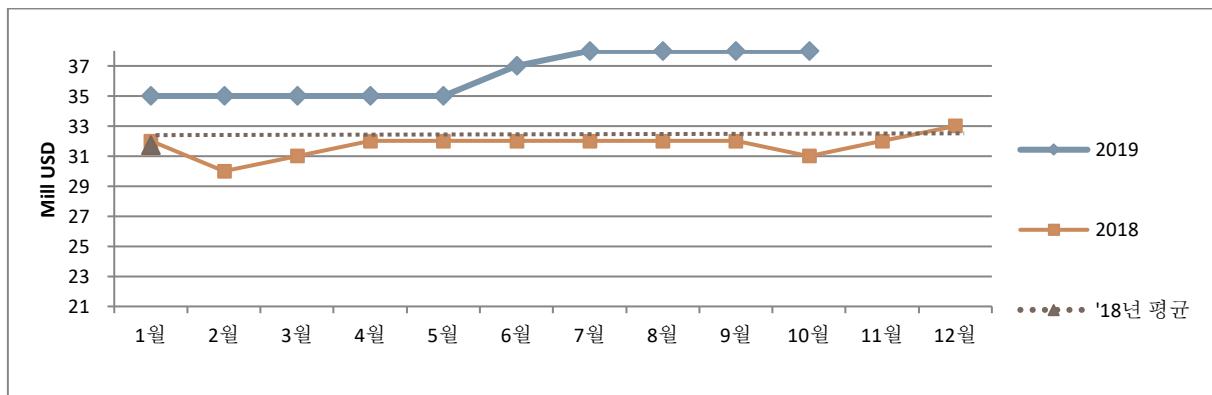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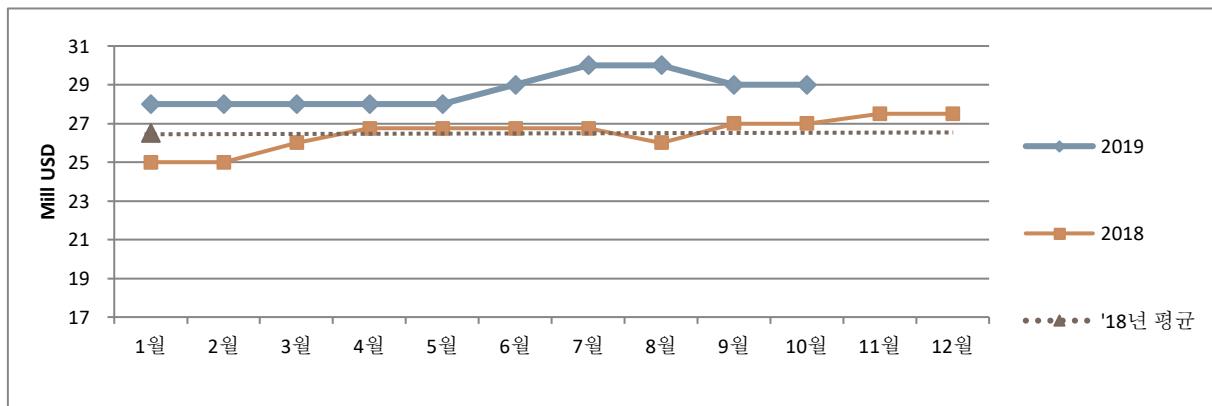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N. TOPAZ	306,324	2000	KOREA	SULZ		25	Chinese buyer
TANKER	DS COMMODORE	298,620	2000	JAPAN	B&W		22	Greek buyer
TANKER	CHALLENGE PACIFIC	47,286	2007	JAPAN	B&W		13.45	Greek buyer (Spring Marine)
LPG	NORDIC GAS	23,267	1994	KOREA	B&W		9.5	Cyprus buyer
OIL /CHEM	AMAK SWAN	6,744	2001	TURKEY	B&W	2&3	5.3	Turkish buyer, Marine line coated

2) CONTAINER, REEFER,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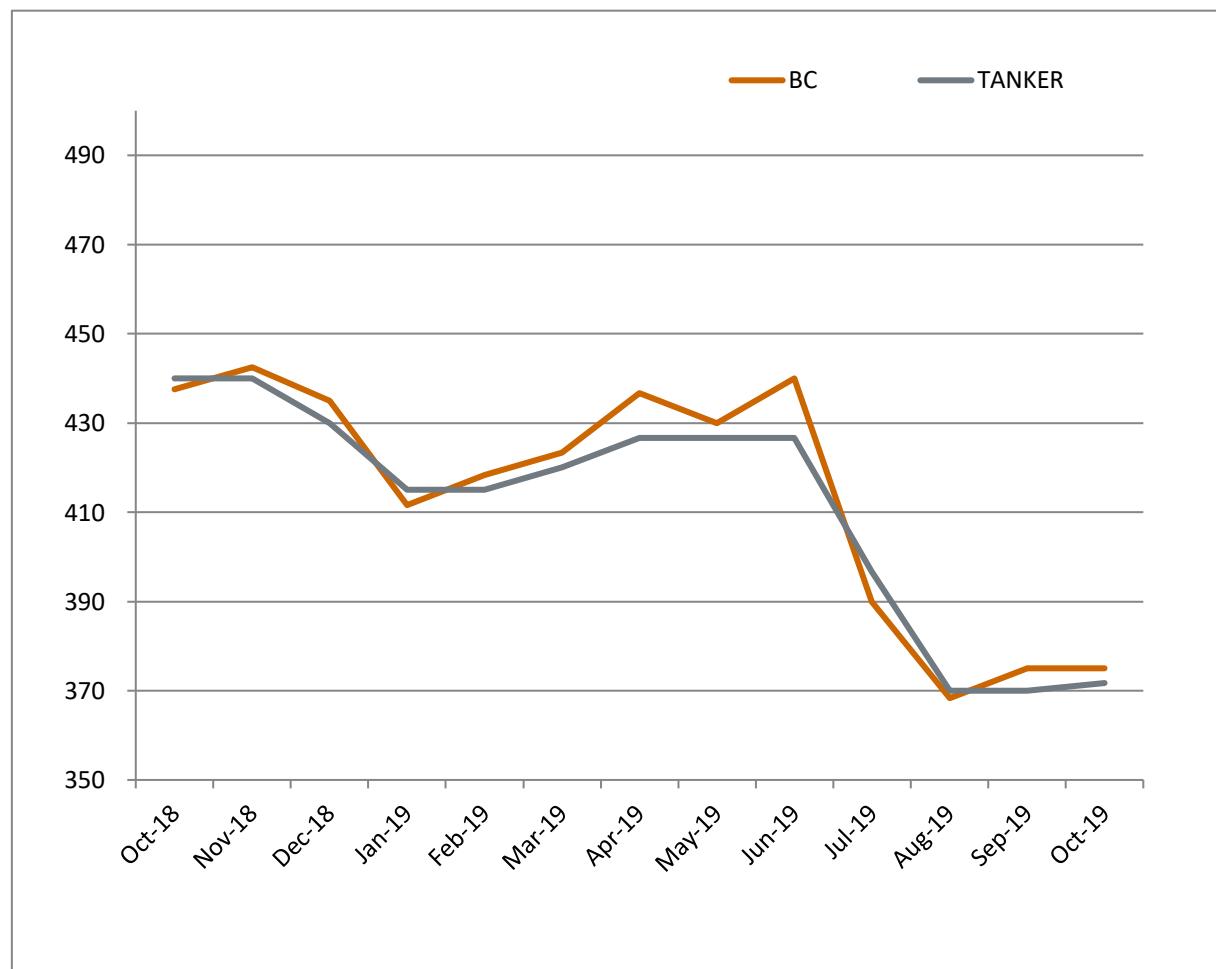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10 월	2019 년 10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403.83	-6.7%	440.00	371.67	0.5% -15.5%
BC	370.83	38.5%	440.63	18.8%	406.83	-7.7%	437.50	375.00	0.0% -14.3%

❖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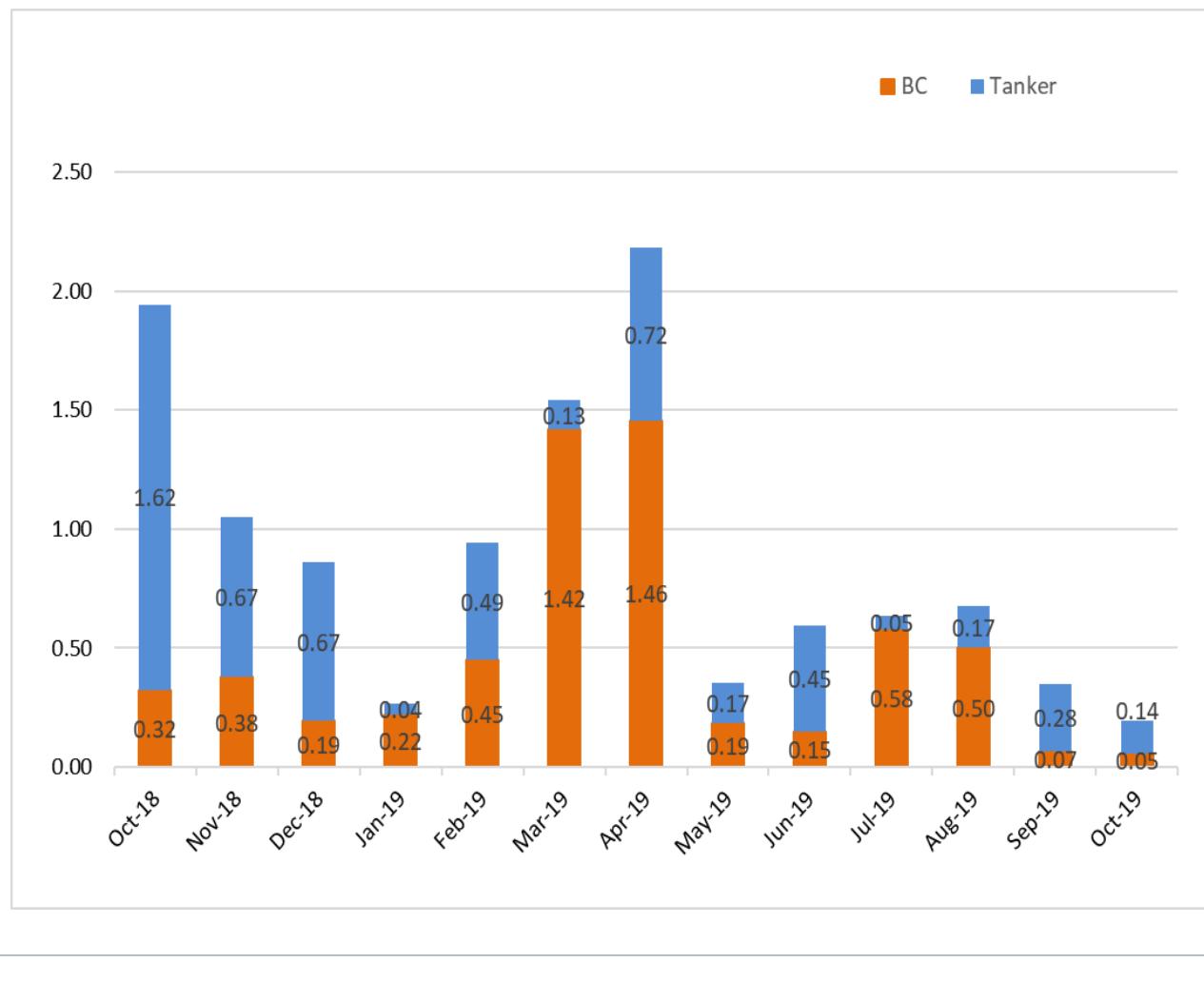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년		2019년 누적				2018년 10월		2019년 10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2.65	12.7%	68	34.9%	1.62	15	0.14	-91.3%	5	-66.7%
BC	4.20	112	5.08	120.9%	90	80.4%	0.32	9	0.05	-83.3%	3	-66.7%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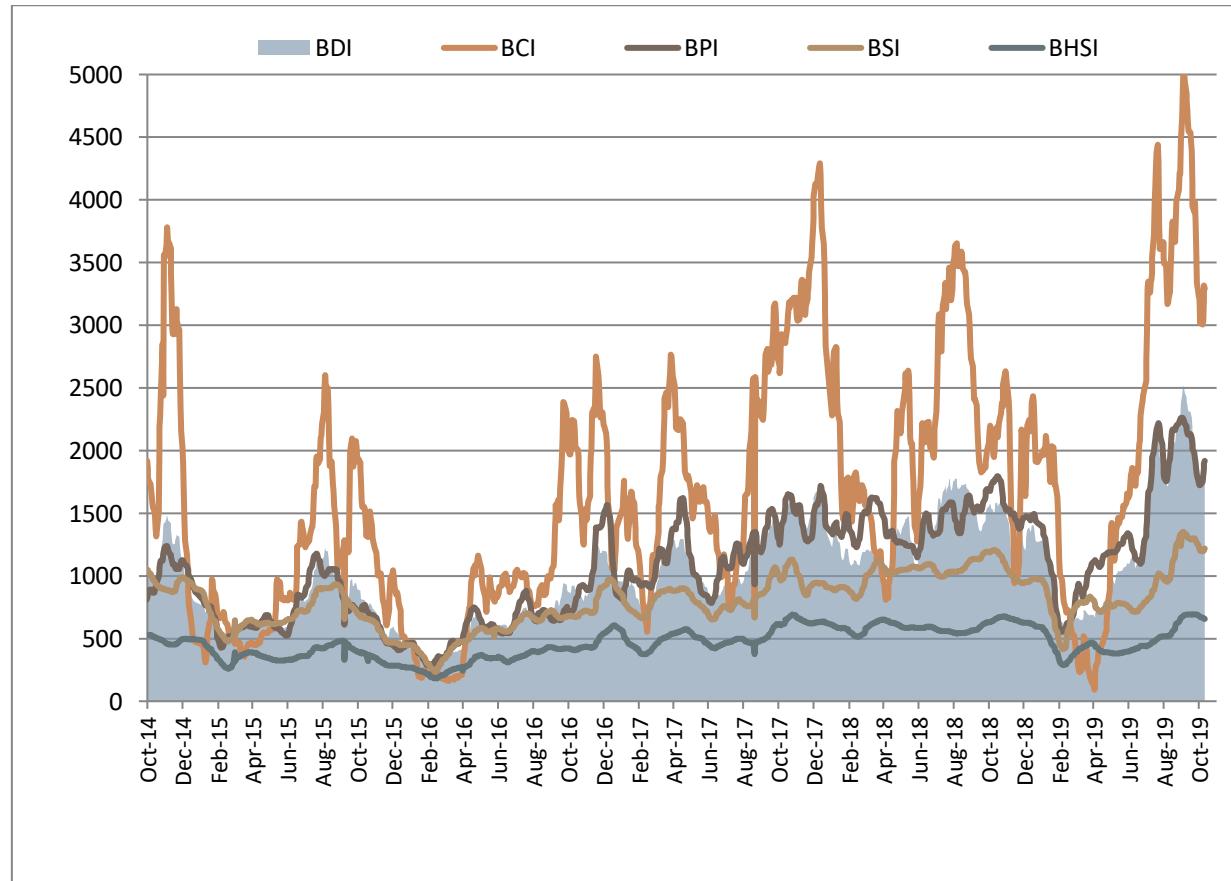
V-1. Demolition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MSC SIERRA II	31,829	8,338	1991	KOREA	B&W	418	INDIA, Incl. 600ts ROB
MPP	SAI SUNRISE	14,170	6,635	1989	GERMANY	SULZ	373	AS IS Sharjah, extra payment for bunkers

V.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9-10-11	2019-10-04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924	1767	▲ 157.00	2518	290
BCI	3290	3021	▲ 269.00	5043	92
BPI	1916	1731	▲ 185.00	2262	282
BSI	1218	1199	▲ 19.00	1351	243
BHSI	658	670	▼ -12.00	692	183



V.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78.50	▼-9.50	317.00	▼-16.00	402.00	▼-12.00
IFO180	399.50	▼-17.50	349.00	▼-42.00	460.00	▼-8.50
MGO	590.50	▲8.00	571.00	▲10.50	614.50	▼-3.50
LSMGO	597.50	▲19.00	576.00	▲18.00	-	-
VLSFO	544.00	▲6.00	521.00	▲16.50	-	-

❖기준일 : 10 월 11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9-10-11	2019-10-04	CHANGE
미국 달러	1196.10	1203.70	▼-7.60
일본 엔(100)	1108.48	1126.37	▼-17.89
유로	1316.61	1320.82	▼-4.21
중국 위안	167.87	168.39	▼-0.52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여권도 등급이 있다?] – by. STL Gtour

여권도 순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곳이 몇 개국이냐에 따라 여권의 지수도 높아지는데요. 얼마 전 CNN에서는 이 여권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1 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를 몇 위에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이번에 공개한 여권 지수는 바로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입니다. 헨리 여권지수는 글로벌 국제 교류 전문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입국 비자를 받지 않고도 방문할 수 있는 나라, 혹은 외국에 도착하자마자 즉석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의 개수를 파악해 이를 순위로 나타내는 것이죠.



10 위: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 180 개국

9 위: 호주,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181 개국

8 위: 뉴질랜드 - 182 개국

7 위: 체코, 몰타 - 183 개국

6 위: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스위스 - 184 개국

VI. STL NEWS & INFORMATION

5 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 185 개국

4 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 186 개국

3 위: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 187 개국

2 위: 핀란드, 독일, 대한민국 - 188 개국

1 위: 일본, 싱가포르 - 190 개국

190 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 여권이 공동 1등에 올랐습니다. 5년 전만 해도 1위를 차지했던 미국과 영국은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190 개국에 두 개 적은 188 개국에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도 상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처: 레드프라이데이 ZUM 허브줌, 2019.10.03]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 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 070-4800-0153)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패키지/하니문/골프 (김홍모 대리 Tel. 070-4800-0150)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 010-2777-4027)